

3. 19세기 미국 문학

1) 프론티어의 개척과 미국의 건설

1775년에 시작된 미국독립전쟁은 1783년 파리조약으로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완성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행보는 국가적 기틀을 다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1787년에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어 반포되었고,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 되었다. 독립 후 불과 60년 정도 만에 미국은 31개 주로 발전했다.

미국의 팽창기는 항상 발전과 그 어두운 그늘이 공존했던 시기였다. 영토의 팽창을 위해 인디언들을 몰아냈으며, 그 과정에서 살육과 탐욕의 역사는 개척과 물질적 팽창의 역사 뒤편으로 묻혀 졌다. 미국의 독립은 그동안 독립전쟁으로 미루어졌던 영토 확장 정책을 재점화 시켰다. 이른바 프론티어(frontier)라고 불리는 서부의 개척지로 진출하는 개척운동은 미국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과 기회를 찾아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이때 생겨난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은 일견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기도 했지만 그 내면은 폭력과 탐욕의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루이지애나 매입지역¹⁾

1803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매입했다. 이 루이지애나 지역의 매입은 미시시피 강까지 닿아있었던 프론티어 경계선을 단숨에 강 서쪽너머의 광활한 지역까지 확장시켜 놓았다. 루이지애나 매입이 있었던 이때까지만 해도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서부지역 대부분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1821년 코르도바 조약으로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텍사스와 미국 서부지역은 자연스럽게 멕시코의 영토가 되었다. 신생독립국인 멕시코는 오늘날 멕시코에 해당되는 동북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 미국 이민자들의 유입을 허락했고 이후 약 25,000명에 달하는 미국 개척자들이 텍사스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카톨릭을 신봉했던 멕시코 정부의 개종요청을 거부했고, 무력으로 관공서와 요새를 파괴하면서 독립을 요구했다. 이 시기의 멕시코는 신생국으로 독립이후의 산재한 문제와 통제력 부족으로 텍사스에서 있었던 텍사스 독립운동을 저지할 수 없었고 마침내 1836년 텍사스는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 이후 텍사스는 1845년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었다.

1) 루이지애나 매입에 관한 조약은 나폴레옹과 토마스 제퍼슨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1803년 5월 2일 서명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루이지애나 영토는 미국에 팔렸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영토는 오늘날 미국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가 확보하고 있었던 미시시피 강 서부유역 전체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체결당시 어떤 지역을 정확히 명시하는 가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없었고 경계도 애매했다.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미국은 자신들이 해석하는 바대로 그 영역을 매입한 것으로 했다. 이 광대한 지역을 구입한 대가로 미국은 1,125만 달러와 프랑스의 빚 375만 달러 등 총 27,267,622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에이커당 3센트도 안되는 가격이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6r2385a>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의 영토²⁾

1836년 텍사스가 멕시코로부터의 독립을 해서 1845년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었지만, 멕시코는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 미국의 입장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멕시코의 영토였던 캘리포니아까지 국경을 넓히고 싶었기 때문에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와中间的의 뉴멕시코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매입하고 했다. 그러나 당시 신생독립국가였던 멕시코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했고, 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국민들의 반대도 극렬했기 때문에 미국의 매입의사 타진은 거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영토분쟁이 일어났다. 텍사스를 병합한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멕시코 국경인 리오그란데 강까지를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고,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 북쪽에 있는 누에세스 강까지를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분쟁은 날로 격화되어 갔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포크가 누에세스 강 너머에 요새를 설치해 버렸고, 이에 멕시코 기병대가 미국군을 공격하자 미국은 1846년 5월 13일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은 미국의 우세로 진행되었고 한때 멕시코의 수도까지 함락될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결국 1848년 2월 2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은 끝났다. 조약의 결과 멕시코는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콜로라도를 포함하는 현재 미국 국토의 1/3이 넘는 지역을 넘겨주게 되었고, 이 대가로 미국은 멕시코에게 약 1,800만 달러를 지불했다.

멕시코 전쟁을 승리한 미국은 마침내 태평양 해안까지 서부영토를 확장시켰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의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로의 이주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849년에 캘리포니아 북부로 금광을 찾아 몰려들어 온 사람들을 “포티나이너스”(49ers)라고 불렀다. 19세기 중반인 이 무렵에 미국은 오늘날의 영토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었고 유럽과 중국에서 유입된 이민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팽창했다. 미국의 이러한 팽창정책을 당시 언론인이었던 오설리반(John O'Sullivan)은 미국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라고 불렀다. “명백한 운명”은 미국의 영토팽창 정책을 미국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는 신념의 기초가 되었고 영토팽창을 합리화하는 정신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2) 남북전쟁과 산업사회의 시작

2)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의 영토로 오늘날의 미국 서부해안 전부와 내륙으로는 텍사스에서 북쪽으로 와이오밍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 멕시코의 영토에 속했다.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Mexico_1835-1846_administrative_map-es.svg

“골드러시”(Gold Rush)라고 불렸던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던 개척민들로 인해 미국의 서부는 급격히 개발되었다. 1860년에 이르러 미국의 철도의 길이는 이미 영국을 3배 이상 추월했으며 초기의 자급자족 경제수준에서 벗어나 다른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고 또 수입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기후, 자연환경, 정착의 역사에 따라 미국의 산업은 자연히 물류와 풍부한 에너지 그리고 시장을 가진 북부의 공업지역과 온화한 기후와 넓은 경작지 그리고 풍부한 노예 노동력을 가진 남부의 농업지역으로 나뉘지게 되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되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하루가 다르게 팽창해 가는 미국의 영토가 이들 이민자들을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북부의 상공업 지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이에 반해 남부는 소수의 대농장 지주들이 약 400만 명에 달하는 노예 노동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면화나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여 주로 영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영토와 산업이 팽창해 가면서 서로 다른 산업 및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북부와 남부의 충돌은 점차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공업을 주로 했던 북부의 주들은 남부의 대농장에 묶여있는 노예들을 자유계약 노동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면서 노예폐지를 주장했고, 농업을 위주로 했던 남부의 주들은 노동집약적인 대농장 산업형태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시키기를 원했다. 새로 생겨나는 주들이 노예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갈 경향이 커지면서 노예제를 찬성하는 주와 반대하는 주의 균형이 점차 무너지게 되었다.

1860년의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링컨이 북부 주들의 지지로 당선되자, 노예제 폐지를 우려한 남부 7개주가 남부연합을 결성하여 분리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남부 7개 주들은 새로운 나라의 이름으로 “미연합주”(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를 공포하고 그 수도를 버지니아 주의 리치먼드로 하였으며, 헌법으로 노예제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새로운 국가의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링컨 대통령은 분리를 선언한 남부 주들의 행동을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1861년 4월 남군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섬터(Sumter) 요새를 공격하면서 4년간의 내전이 시작되었다. 남북전쟁은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간 벌어진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그 결과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군과 북군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주었지만 북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후 전쟁의 판도는 북군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되었다. 마침내 1865년 4월 3일 남군의 수도인 리치먼드가 함락됨으로써 실질적인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

남북전쟁은 미국의 북부와 남부의 서로 다른 산업형태 사이에서 패권을 다투었던 전쟁이었다. 결과적으로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은 이후 산업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남부의 농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부의 공업도시들이 미국의 미래와 주력산업을 상징하게 되었다. 남북전쟁이 가져다준 공업화와 산업자본주의는 미국을 단기간에 물질적으로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빈부의 격차, 도시의 슬럼가, 범죄의 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동시에 끌어안게 되었다.